

금융권에 만연한 '甲의 횡포' 뿌리 뽑는다

꺾기·고금리 대출·불완전 보험상품... 당국 전방위 조사...적발땀 가중 처벌

남양유업의 제품 강제 파문으로 '갑의 횡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의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

시정조치가 있었지만 근절되지 않는 은행권의 꺾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이 핵심 표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조사할 예정이다.

기준에 조사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금융사의 관행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조사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등 금융 인력을 총동원해 이뤄지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감원도 최근 민간인 출신 오순명 씨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권한을 대

폭 강화해 금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검사청구 제까지 연내 도입해 '을'의 피해를 보는 금융 소비자들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강경 입장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처럼 제조·유통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분야에서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 분야는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은 여전히 조만간 '꺾기 테스트(TF)'를 가동해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꺾기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

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세칙에 나와 있는 구속성 예금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으로 끌어올려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높이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최고 5000만원인 꺾기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꺾기 제재나 근거 법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손을 볼 예정"이라면서 "개인 부분은 많이 개선됐으나 중소기업 부분은 아직도 미약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대표적인 '갑'의 횡포여서 금융감독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가맹점 수수료료, 카드 부가해택 축소 등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 지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수수로 적정성 등도 전면 검사를 받는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가 '갑'의 지위를 내세워 고객을 괴롭힌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와 피해액수,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금융 소비자보호 대상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9일 오전 (주)해럴드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안전회회가 후원한 '2013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대상' 시상식에서 금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3 대한민국 소비자보호대상'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강화 등 경제민주화에 앞장서 소비자보호 경영체제를 모범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시상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 7월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으며 민원발생시 영업점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또 '민·학·사 교육(민원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을 '민원제로데이'로 선정하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기진 행장은 "광주은행은 친절한 은행, 상냥한 은행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고객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611만명 종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납부 작년보다 36만명 증가... 고소득 자영업자 검증 강화

지난해 이자·배당·사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611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6만명이 증가했으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

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배우, 탤런트, 가수, 유흥업소 운영자, 숙박업자, 학원운영자 등의 성실 신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는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이 7억 5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30억원(농림어업 등) 이상인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효성나눔봉사단 발대식. 효성은 8일 오후 임직원 7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결성한 '효성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봉사단 출범을 알리고자 공덕동 봉사사육 인근에서 거리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효성 그룹 제공>

시중은행 예대금리 내주부터 줄줄이 인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의 대출과 예금 금리도 줄줄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자금과 상품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를 열어 상품별 금리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중은행 신규 대출자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화된 금리를 적용받고 기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는 3~6개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수신금리는 시장금리 추이를 지켜보고 인하 여부와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게 은행권의 견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최근까지 고시금리를 계속 끌어내린 상황여서 금리 인하 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픽스 대출자는 코픽스 금리가 수신금리에 연동돼 반영속도가 느린 만큼 다음달 중순부터 인화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보험업계의 총 자산은 생명보험사 550조원, 손해보험사 150조원 등 총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뉴스

전남·북 위험도로 36곳 5년간 816억 들여 구조개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남·북지역의 위험도로 36개소에 5년간 816억 원을 투입해 구조개선 및 선형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지역 대상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국도 24호선과 무안군 해계면 송석리 국도 77호선 등 18곳(344억 원)이며 전북지역은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국도 30호선과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국도 19호선 등 18곳(472억

원)이다. 올해에는 함평읍 내교리 국도 24호선과 곡성군 입면 장정리 국도 13호선, 무주읍 오산리 국도 30호선,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등 4곳에 총 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청은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도로의 폭과 곡선 반경, 경사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79.45 (+23.00)	▼ 코스닥지수 573.35 (-3.35)	▲ 금리(국고채 3년) 2.55% (0.00)	▲ 원·달러 환율 1091.00원 (+4.50)
-----------------------------	---------------------------	------------------------------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궁인가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정인 및 수형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감을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는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드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박,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드라한의원 임종원 한의학박사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통-9818호 (광교)